

1. 1일차 : 인천공항집결 후 서안이동, 한양릉 탐방.

미세먼지로 며칠 째 뿌옇고 답답한 날들이 이어지던 2018년 11월 7일 아침. 에휴 망했다. 하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출국하는 날 새벽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다. 사실 해외역사문화탐방을 신청해 놓고 대상자로 선발이 확정된 이후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가끔씩 습관처럼 탐방 기간(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동안의 서안 날씨를 계속 검색하곤 했었다. 첫 검색에서는 탐방기간 내내 비가 내린다고 되어 있어서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출발 며칠 전 검색에서는 날씨가 맑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 안심을 했다. 그런데 출발 당일에 한국과 서안 모두 비라니..... 부디 우리의 탐방 일정에서 날씨가 맑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빌면서 여객기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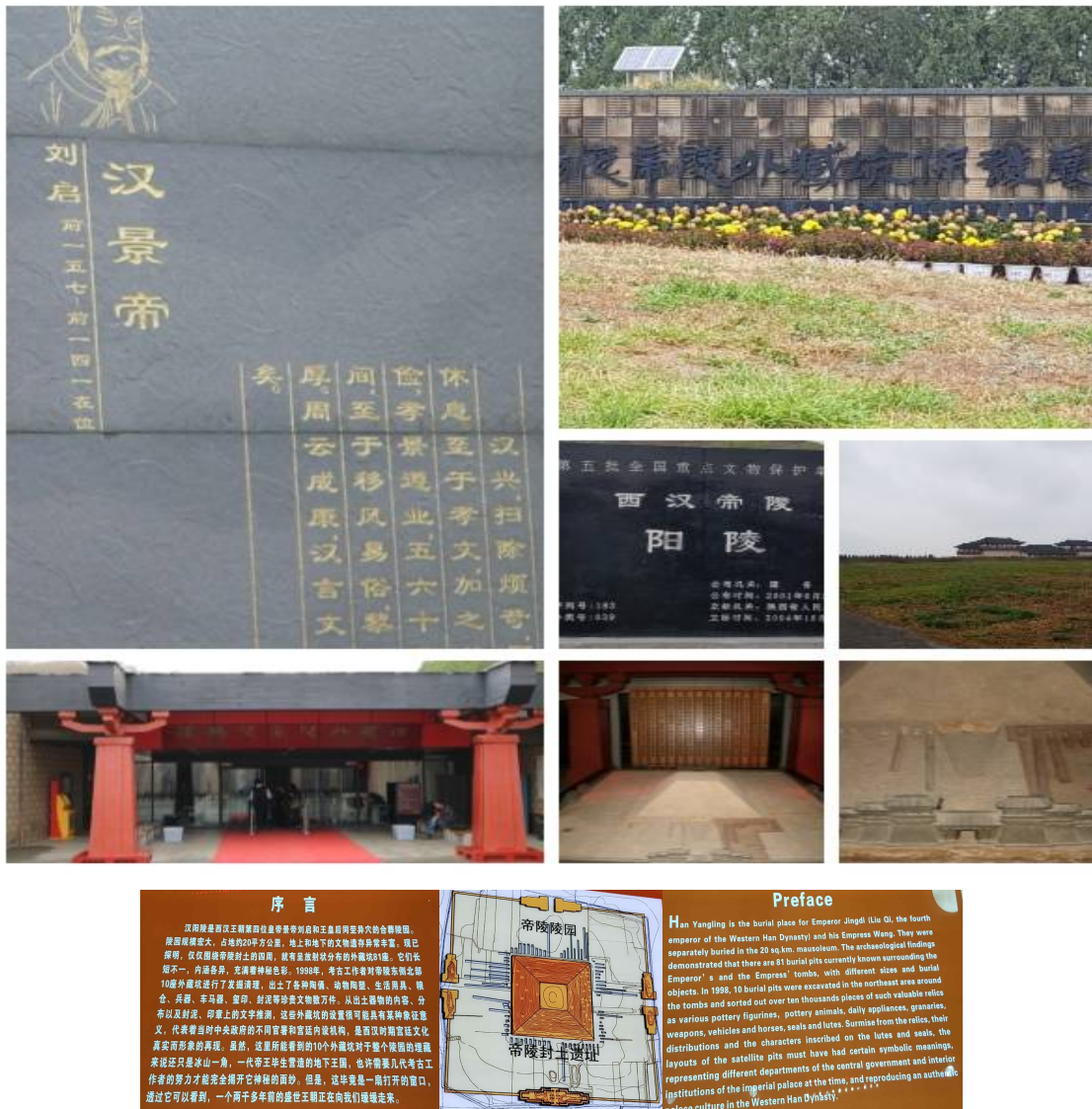
3시간여의 비행 끝에 도착한 서안공항의 첫인상은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엔, 더구나 대륙의 공항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아 보였다. 그리고 입국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만난 직원들 모두 너무 불친절하고 심지어 고함을 치거나 영어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등의 상황들로 인해서 살짝 당황스럽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행자들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여행이 걱정되기까지 했다.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은 수속을 마치고 나가서 마주한 현지 가이드의 인상이 친근하게 느껴졌다는 점과 3박 4일간의 탐방기간 내내 맛깔나는 입담과 풍부한 지식으로 우리들에게 열성적인 설명들을 해 주었다는 점이였다. 1시가 다 되어 공항을 나선 우리의 첫 목적지는 공항 근처의 식당이였다. 중국에서의 첫 식사는 중국 현지인들이 평소 먹는다는 메뉴들로 구성되어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묽고 튀긴 조리법이 사용되어 너무 많이 기름졌고 현지식 특유의 냄새까지 더해져서 조금 거부하다는 첫인상을 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이동한 곳은 탐방의 첫 번째 코스인 한양릉¹⁾이였다. 이전의 군주들 무덤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도 함께 매장을 했던 “순장”의 형태가 많았지만 이곳 한양릉의

1) 한나라 4대 황제였던 경제(유계(劉曄), 기원전 157년~141년 재위)와 그의 황후가 합장된 곳

경우에는 황제의 무덤을 중심에 두고 사방으로 도자기로 만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매장되어 있는 배장묘(陪葬墓)²⁾의 형태라는 점이 특이했다. 황제의 사후에도 생존시와 동일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중을 담당할 내관이나 궁인들은 물론이고 신하들과 심지어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흙으로 빚어서 구워낸 도자기로 만들어 무덤 주변에 함께 묻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순장 형태로 묻어서 희생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문경지치(文景之治)라는 말로 대표되는 한경제의 선정이 그의 무덤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양박물관의 경우에는 한경제의 무덤 주변에 배장품들이 있었던 공간인 외장갱 위쪽에 강화유리를 덮고 전시관을 만들었고 관람객들이 바로 그 강화유리 위를 걸으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입장을 하기 전에 우선 현관에 마련된 덧신을 신발 위에 씌우고 검색대³⁾를 통과해야 했다.



- 2) 왕의 사후에도 생존과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궁인들과 가축 등을 배치하되 과거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함께 매장하는 형태의 순장이었지만 한경제의 무덤에서는 도자기와 나무 등으로 만든 작은 인형들로 만든 미니도시를 능의 주변에 배치한 형태였다.
- 3) 공항 검색대처럼 관람객들의 가방을 X-ray 검색대에 올려서 검색을 쳐야 하며 관람객도 검색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음.

검색대 통과 후 우측부터 관람을 시작했는데 바닥과 벽면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는 전시관을 보면서 바로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구에서 덧신을 착용하도록 했구나 싶었다. 발 아래쪽은 물론이고 벽면을 통해서도 작은 인형들이 무수히 많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원래 만들 당시에는 비단옷을 입고 나무로 된 팔을 가진 형태였으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부 부식되고 흙으로 빚어서 도자기처럼 구운 몸통 부분만 남게 되어 오늘의 모습이 된 것이라고 했다. 갭마다 놓여있는 배장물들의 형태나 모양새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각각의 목적에 맞게 동물 모형이 놓여있는 곳도 있었고 인물들만 놓여있는 곳, 혹은 황제의 행차 등을 형상화 해 둔 모형 등도 볼 수 있었다. 간혹 실제 동물의 뼈로 추정되는 것들도 볼 수 있었는데 마치 거대한 지하도시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더욱이 평소 황제의 생전에 곁에서 시중을 들었던 궁인들이나 신하들을 모형으로 그 각각의 외형적 특색을 모두 살려서 만들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관람을 마친 우리는 배장품을 만들었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형들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했다. 우선 각각 미리 마련되어 있던 사람모양 혹은 동물모양의 거푸집 양쪽에 찰흙을 메꾸어 넣고 두 개의 거푸집을 합치는 방법으로 모형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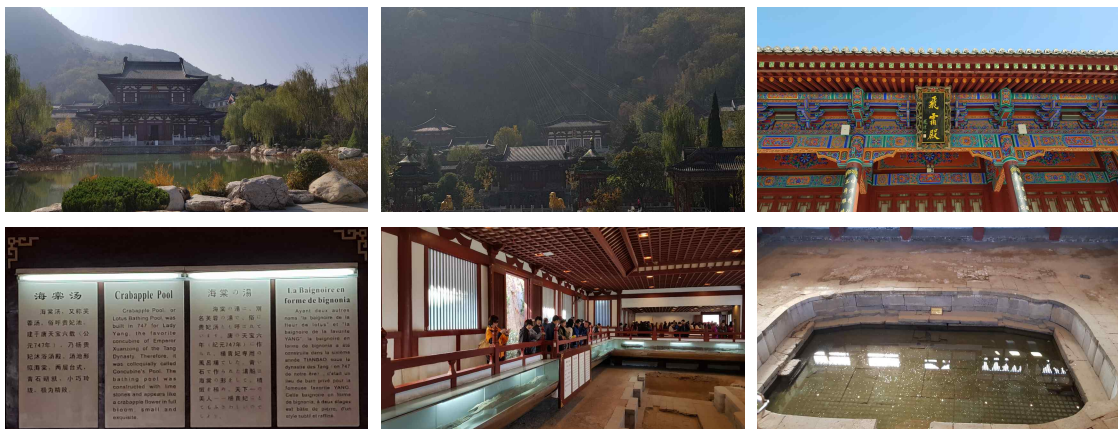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원이 조금 짧게 끊어서 설명을 해 줬더라면 가이드의 통역이 가능하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가 알아듣진 말건 혼자 설명과 시연을 이어나갔던 점이 너무 많이 아쉬웠다.

이어서 기와 탁본 체험도 했는데 생긴 모양새로 봐서는 기와라고 하기 보다는 수막새의 가장 앞쪽 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게 체험을 마친 후 우리 일행은 점심과 비슷한 메뉴의 저녁을 먹은 후 숙소인 순다첸틀맨인터내셔널호텔로 이동하여 짐을 풀고 첫날의 일정을 마쳤다. 나랑 룸메이트를 포함한 몇몇은 간단하게 짐정리를 마친 후 호텔 근처를 둘러보기 위해 나섰는데 과일가게를 지나면서 용과라는 과일도 몇 개 사고, 포장마차처럼 되어 있는 판매대에서 현지인들이 즐겨먹는다는 길거리 음식도 구경할 수 있었고, 길 한가운데에서 보도블록 위로 분필 등을 이용해 뭔가를 그리고 쓴 뒤 지전이나 옷 등을 태우며 기원을 하는 많은 현지인들도 볼 수 있었다. 나중에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중국의 무슨 행사의 일종인데 보통 그 기간에 고향에 갈 수 없는 이들이 조상에 대해 성묘하는 의미로 하는 행동들이라고 했다.

2. 2일차 : 화청지, 진시황릉, 병마용갱, 지하궁전 등

어찌 보면 서안여행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을 모두 탐방하는 날이다. 천하절색의 미모로 한 번 이름을 날리고 시아버지와 사랑에 빠졌다면 또 한 번 이름을 날린 양귀비와 당 현종의 겨울별장이었던 화청지가 여행 2일차의 첫 탐방지였다. 양귀비와 당현종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근대사에서도 화청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는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전부 소실되어 있던 것을 일부만 복원한 것이라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매년 10월 말까지 화청지 바로 뒤에 있는 여산(驪山)과 화청지 자체를 무대와 배경으로 하는 어마 어마한 규모의 공연을 볼 수 있다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올해의 공연이 모두 종료되어 무대나 객석은 철거 된 상태여서 매우 아쉬웠다. 화청지도 전날의 한양릉과 마찬가지로 검색대에 소지품을 통과시켜야 입장이 가능했다. 정문을 들어서면 아름다운 풍경의 전각이 눈에 띄고 좌측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 당현종과 양귀비의 침실이었던 비상전⁴⁾이 나오고 그 앞쪽으로는 여산과 함께 그 유명하다는 장한가무쇼의 무대가 펼쳐진다고 했다.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면 양귀비 조각상과 그 뒤쪽으로 여러 개의 욕탕이 늘어서 있다. 조금 특이하다고 한다면 황제의 욕실에서 흐르는 물이 황후의 욕실로 흐르고 다

4) 임금의 침실에 서리상(霜)자가 쓰인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추운 겨울 온천지역인 화청지의 아침에 서리가 내려서 하얗게 되는 일이 많았던 탓에 그리 이름 붙여진 것이라고 했다.

시 그 물이 요리사들의 욕실로⁵⁾ 흐르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남이 닦은 물을 물려받아서 몸을 씻는다는 것이 내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 당시에는 황제의 성충을 내려 받는다고 인식이 되었던 것인지 화청지의 욕탕 구조가 내게는 많이 낯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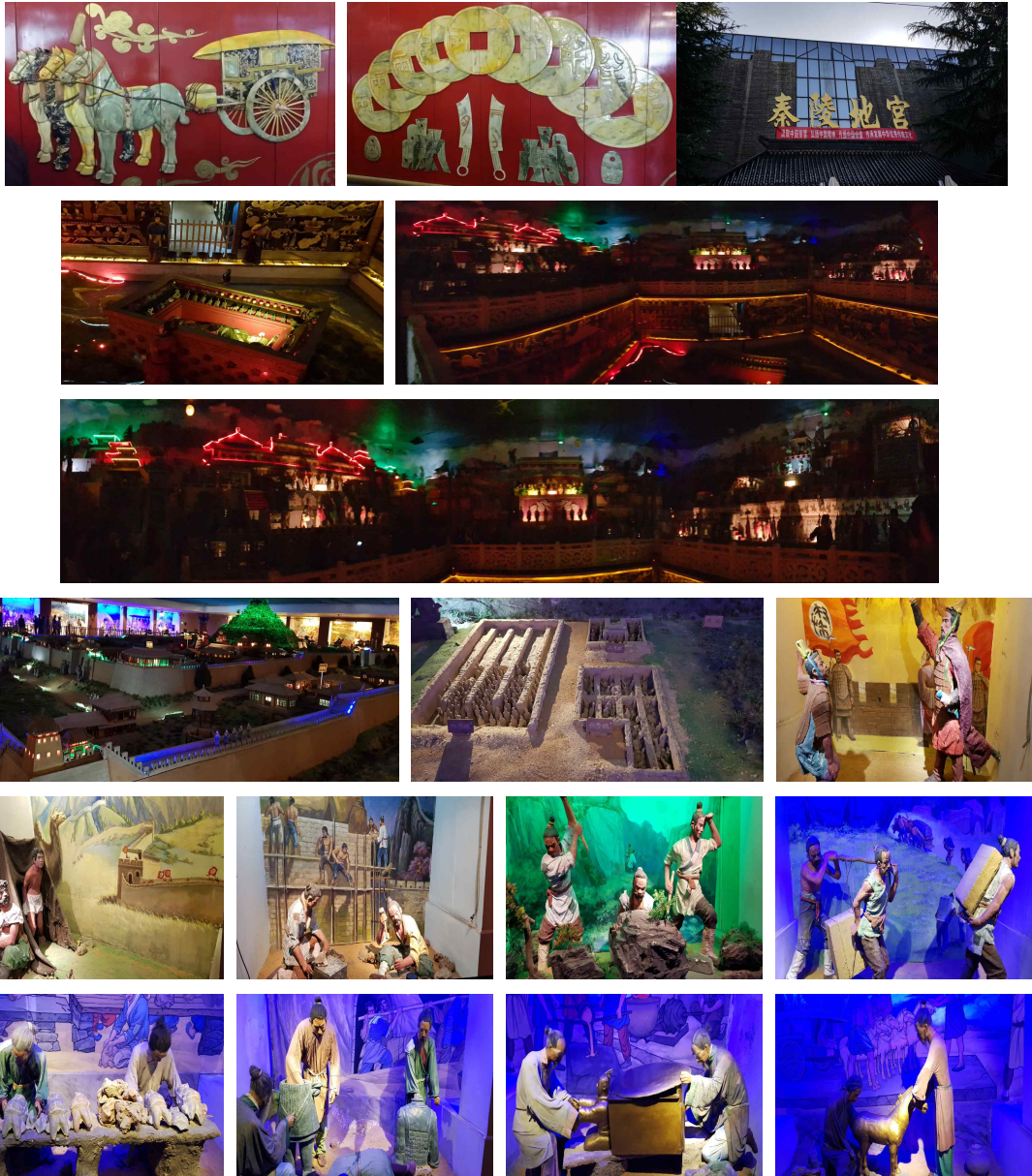
우리는 이곳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고대사로부터 시작하여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화청지가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자리를 지켰던 것과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연을 가진 것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첫 번째 조별 미션으로 화청지 곳곳을 다니며 재미있는 구성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화청지 탐방을 마친 후 우리는 진시황릉과 병마용갱, 지하궁전 등을 탐방하기 위해 이동했다. 오늘날 중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는다는 진나라의 시황제, 영생불사를 꿈꾸며 불로초를 찾기 위해 각지로 신하들을 보냈다고 하던가? 그렇게 불로장생을 꿈꾸던 그는 희망과 달리 채 50년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도량형의 통일, 화폐의 통일, 심지어 수레바퀴의 규격화 등 그의 각종 치적은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근대의 중

5) 임금의 음식을 조리하는 요리사들은 손으로 자신의 발을 만지면 안 된다고 하여 발을 닦을 수 있도록 요철처럼 만든 바닥이 있는 욕실을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국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하궁전의 입구는 진시황의 여러 치적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벽면에 옥돌 조각으로 전시하고 있었다. 그런 지하궁전의 내부에는 진시황제의 시신이 안치 된 석묘를 중심으로 빙 둘러서 사방으로 황제의 평소 생활모습을 나타내는 모형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반면에 진시황릉⁶⁾에 실제로 갔을 때는 원래 높은 산처럼 우뚝 솟았던 무덤이 세월의 흐름과 풍화작용 등을 고스란히 겪으며 저절로 낮아져서 제주의 오름보다도 낮은 형태의 둔덕 같다는 느낌만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황제의 무덤이라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다.



지하궁전의 전시실에는 중앙에 진시황릉의 모형과 병마용갱 등이 미니어처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주변을 빙 둘러서 진시황릉이 조성될 당시의 상황과 과정도 모형으로 만들어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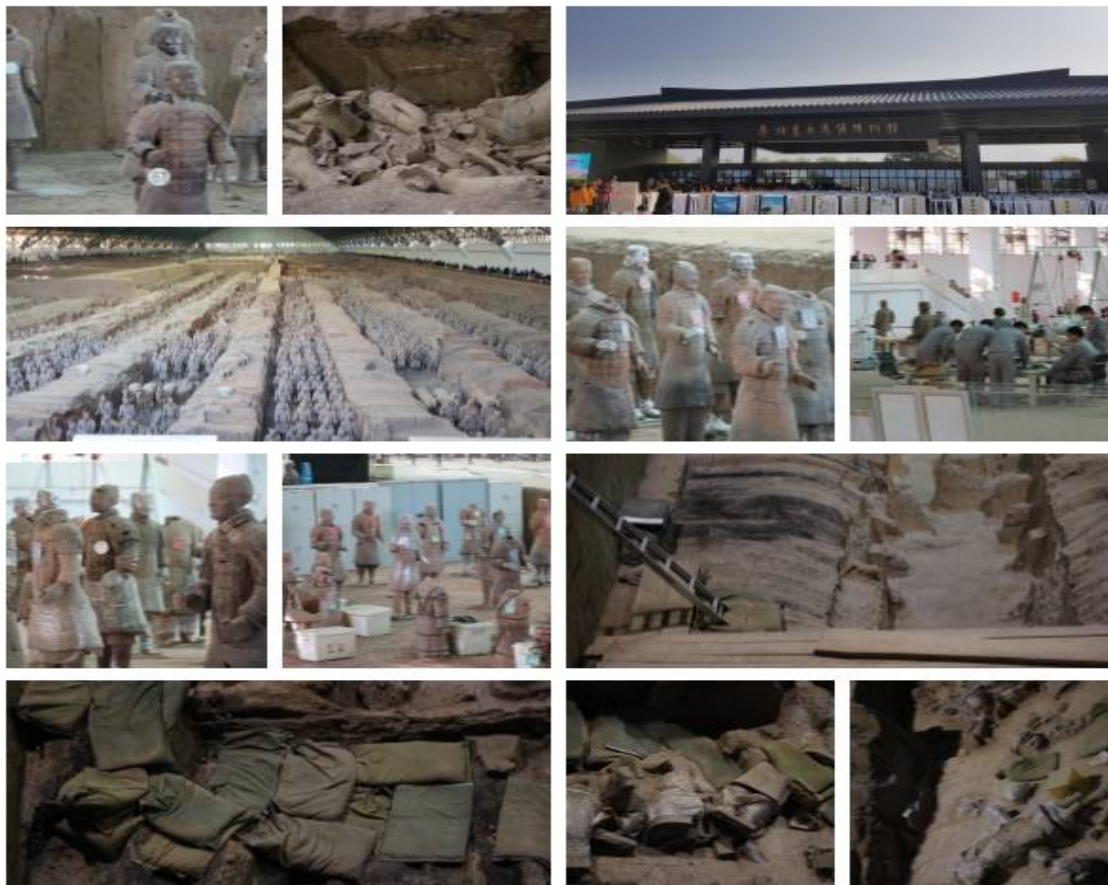
6) 실제 황제의 무덤은 발굴 작업조차 진행하지 않고 그 터만 확인했다고 한다. 이는 무덤 속에 매장된 일체의 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라고 하며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하궁전이라는 전시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축소모형 등의 형태로만 전시해 두었다고 했다.

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대체로 진시황제 한 사람의 야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것들이어서 진시황제의 공적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좋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진시황제의 무덤 공사를 위해 투입된 인원들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살아서는 무덤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⁷⁾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이들도 강제로 이주를 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혹은 타지역에서 살던 이들이 진시황릉 주변으로 강제이주를 당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했다. 결국 진나라의 시황제 한 사람의 무덤공사를 위해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가 본 곳은 그 유명한 병마용갱이었다. 진시황제의 무덤을 지키고 사후에도 황제를 보필하라는 의미로 진시황릉 주변에는 실제 사람과 같은 크기로 만든 도자기 병사와 말이나 수레 등 거대한 군대가 매장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도자기로 만든 거대한 군대를 병마용이라고 부르고 이들 병마용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병마용갱이다.

1974년 우물을 파려고 땅을 파던 농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제 1호갱부터 제 3호갱까지 총 3개의 병마용갱이 발굴되어 일반에 개방 중이었고, 제 4호 갱의 경우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어 지상에 별도의 표식까지 되어 있었다. 발견이 된 것만 이 정도 규모이고 진시황릉의 사방에 그런 병마용갱이 존재했다고 하니 그 전체 규모는 도무지 짐작도 되지 않을 정도이다.



7) 일부는 공사 도중에 생을 마감했고, 생존한 인원들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은 죽여서 살아서 나간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제 1호갱에서 발굴된 병마용들은 주로 맨몸으로 적군과 싸우거나 화살받이가 되어야 하는 하급병사들로, 제 2호갱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병사들과 기갑부대 등으로 보이며, 제 3호갱은 지휘부라고 보인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각각의 병마용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연히 구분되는 모양새였다. 규모는 제 1호갱이 가장 컸고 우리가 방문한 날에도 여러 명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발굴 작업과 병마용 복원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곳곳에 복원작업이 진행 중인 병마용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말과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까지 이용하여 복원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알려진 바로는 6000개가 넘는 병마용들이 매장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저마다 표정이나 얼굴이 제각기 다르다고 하니 그 작업을 했던 이들의 실력과 섬세함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또한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에서 행여나 작업자들이 다니는 걸음으로 인해 발밑에 놓여 있는 유물들이 훼손 될 것을 우려한 것인지 방석처럼 생긴 깔개를 깔아두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 조치를 해 놓은 것도 눈에 띄었다. 예전에 어디에선가 읽은 글에서 천천히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병마용 발굴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하더니 정말 천천히 조심하며 발굴과 복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2일차의 모든 탐방을 마친 뒤 저녁식사는 채선당이라는 이름의 회전식 샤브샤브집으로 갔었는데 자리 잡고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려던 순간 근처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정전이 되는 바람에 우리들은 저녁식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잠깐 동안 했었다. 그래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다시 전기가 들어와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숙소로 복귀할 수 있었다.



3. 3일차 : 섬서역사박물관, 대안탑, 비림, 문서거리, 소안탑, 서안박물관, 회족거리 등

섬서역사박물관과 서안박물관은 모두 고대 장안지역의 유물들을 전시해 둔 곳이었다. 서역과의 교역이 활발했고 실크로드가 개척되었던 시절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유물들도 많이 있었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유물 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 역사박물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비슷한 형태의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다만 규모면에 있어서 섬서역사박물관이 서안박물관보다 많이 컸고 실크로드를 통한 서역과의 교역의 결과물들과 이국적인 분위기의 각종 조형물들이 눈에 띄었고 병마용갱에서 보았던 병마용들 중 일부도 전시되어 있었다. 서안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기다란 돌로 여러 모형들을 조각한 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쭉 늘어서 있었는데 설명에 의하면 실크로드에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던 기둥들이고 말이나 낙타 등을 묶어두고 휴식을 취할 때 이용하던 것이라고 했다. 기둥의 윗부분은 각종 동물이나 기타 여러 형상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서 꽤 멋진 분위기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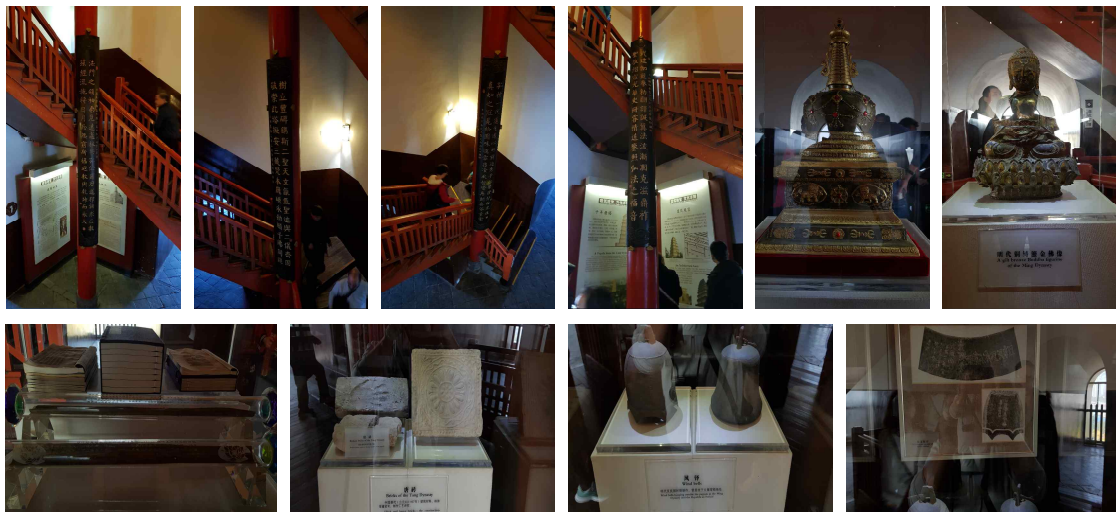


그리고 비림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마침 소방안전훈련이 있는 날이었는지 여기 저기에서 연막탄이 터지고 사이렌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곧 이어 미니 소방차가 몇 대 출동하고, 소방관들이 호스를 연결하더니 진화작업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전부 입장시에는 공항 출입국 심사와 비슷하게 관람객의 가방을 일일이 검색대를 거치면서 수색하고 심지어 섬서역사박물관이나 서안박물관의 경우에는 셀카봉과 라이터 등을 입구에서 모두 수거하여 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하고 나서야 입장을 시켰는데 비림에서는 소방훈련을 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면서 중국인들이 얼마나 자국의 문화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관리부실로 소실되었던 우리의 숭례문이 떠올라서 부끄럽고 속상하면서 화도 조금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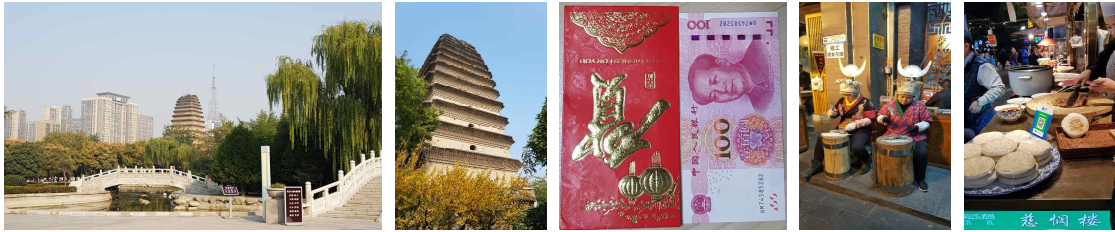
대안탑은 자은사라고 하는 절에 자리한 탑으로 우리나라의 탑들처럼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부도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가지고 온 경전을 번역하고 보관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탑 내부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기둥부터 시작해서 2층과 3층, 4층 등 각 층마다 여러 가지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비림에서 나와서 들렀던 문서거리에서는 여러 서적들이나 문방사우 같은 것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많이 있었고, 대나무를 쪼개서 글을 새기고 책으로 묶은 죽간들도 많이 보였다. 물론 관광객들을 상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것들이긴 했지만 논어, 시경, 도덕경 등 각종 서책의 내용을 옮겨 놓은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내가 찾는 명심보감은 책으로도 죽간으로도 보이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다.

서안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한 소안탑은 대안탑보다 규모도 좀 작은 편이었고, 언젠가 낙뢰가 떨어지면서 탑의 상부가 일부 파손되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후 별다

른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파손된 상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파손 때문인지 아니면 탑의 구조가 대안탑처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인지 통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는 밖에서 대략적으로 관람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후 두 번째 조별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회족거리로 자리를 옮겼다.



회족거리는 중국내 소수민족인 아랍인들이 모여서 살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곳으로 그들의 특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학교에서 나눠준 돈⁸⁾으로 대표 먹거리 3가지⁹⁾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회족거리에서의 두 번째 조별 미션을 끝으로 마지막 날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고 우리는 서안에서의 마지막 저녁식사를 위해 덕발장이라고 하는 식당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과거 국내의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방문하여 화제가 되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의 만두들이 식사로 나왔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음식이라기보다는 공예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여러 형태의 만두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식사 중에는 주방장님이 나와서 두 가지 종류의 만두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들 중 몇몇이 직접 나가서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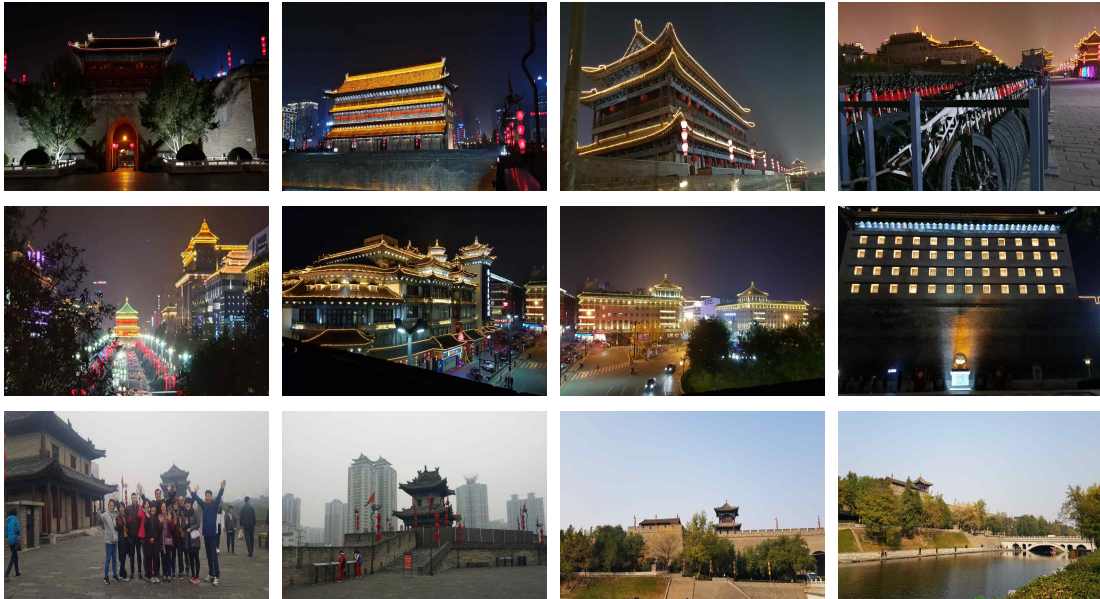
8) 1인당 100위안씩 팻팻한 신권을 예쁜 빨간색 봉투에 넣어서 주셨다.

9) 양꼬치, 발효유, 이슬람식 빵에 삶은 양고기 양념한 것을 넣은 리우짜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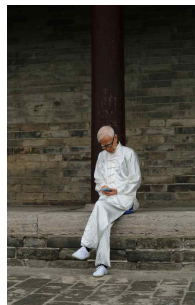
론 이 만두 만들기 체험의 경우에도 다른 팀에서는 하지 않은 우리 팀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이었고 그 날 그 곳에 있던 수많은 관광객들 중 일부는 왜 자기들은 만두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지 않느냐며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4. 4일차 : 성벽투어, 귀국

사실 나는 여행 이틀째 되던 날 몇몇 여행 동기들과 함께 택시를 잡아타고 장안성 남문으로 야경투어를 다녀왔기에 장안성 성벽투어도 나름 마친 상태라고 생각했다. 택시 잡는 방법이 우리와 많이 달라서 몇 대를 놓치고 조금 고생을 하면서 다녀왔는데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곤란했던 것도, 택시를 나눠 탄 일행들과 길이 엇갈리면서 만나는데 조금 고생을 했던 것도 모두 충분히 보상이 될 만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어 주어서 나름 새로운 추억거리가 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야경도 아주 멋지고 황홀했지만 성벽의 총 둘레가 14km 정도가 된다고 하더니 성벽 위에는 자전거를 대여하는 곳이 여러 군데 보였다.



하지만 귀국하기 전 오전 일정으로 장안성 성벽투어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사실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다. 이미 경험한 것을 다시 경험해야 했으니 조금 떨떠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 전날 야경을 보기 위해 올라갔던 남문쪽 성벽이 아니고 동문쪽 성벽이어서 보이는 풍경도 달랐고 주는 느낌도 달랐다. 또 수학여행을 온 것인지 여러 학교에서(입은 옷들이 서로 달랐음) 온 것으로 보이는 학생들과 다른 관광객들도 아주 많이 보였다. 덕분에 전날 저녁에 야경을 즐기던 시간과는 또 다른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누각의 뒤편에서는 전통의상을 입고 독서삼매경에 빠져 계시는 어르신 한 분 만날 수 있었다. 조심스레 사진을 찍어도 될지 양해를 구한 후 몇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78세나 되셨다고 했다. 우리들이 각자의 전화기로 사진을 찍고 있었더니 어르신께서도 당신 전화기를 꺼내주시며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셨다. 어르신은 영어가 안 되시고 우리들은 중국어가 되질 않으니 의사소통이 조금 많이 힘들었지만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서 인사도 약간의 의사소통도 하고 작별을 했다. 이후



어르신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들로 미루어 혹시 파룬궁 수련을 하시는 분은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진을 찍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것 말고는 달리 문제될만한 일이 생기지 않았음에 안도하며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시안공항으로 이동했다. 수숙을 마치고 3박 4일간 열심히 우리에게 장안의 여러 곳을 소개하고 재미난 입담으로 여행기간 내내 유익한 재미를 주었던 가이드와 작별을 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을 했다. 공항에서 각자의 짐을 챙기고 3박 4일간 정이 들었던 학우들과도 작별을 했지만 우리들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5. 해외역사문화탐방, 시안 방문이 내게 남긴 것들

이번 해외역사문화탐방을 계기로 중국이라는 나라, 서안이라는 곳에 처음 방문을 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조차 수도의 다른 말이 장안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오랜 세월을 걸쳐서 융성한 도읍이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남겨진 유적들도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

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유적들 몇 군데를 탐방하는 동안 내내 입장을 할 때부터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공항의 검색대를 방불케 하는 X-ray 검색기에 소지품을 모두 통과시켜야 하고 우리들 역시 검색대를 통과해야 관람을 할 수 있었다. 직원들은 누구 하나 친절함을 찾아보기 어려웠고(물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언어적인 장벽이 너무 높았다. 보통 다른 국가의 관광지나 숙소 등에서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서안에서는 중국어가 불가능하면 일체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영어로 소통이 전혀 되질 않았다. 심지어 준5성급이라고 되어 있었던 우리의 숙소에서 조차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했다.

하지만 비림에서의 화재진압 모의훈련이나 유적지 입장을 위해서 철저한 검색을 하고 라이터 등과 같은 물건은 입장하기 전에 미리 수거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은 사실 매우 번거롭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의 각종 유적지나 박물관들에서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전에 관해서라면 조금은 지나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각 관광지마다 화장실은 전혀 청결하지 않은데다 줄을 서서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일행들 밖에 없어서 너무 놀라웠다. 한 번은 우리 일행들이 먼저 들어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화장실에 중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몰려 들어왔는데 줄을 서 있던 우리들을 모두 무시하고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바람에 나를 포함한 우리 일행들은 멘붕에 빠졌고 결국 우리도 질서 무시하고 빈자리가 생기는 대로 밀고 들어가서 용변을 해결해야 했다. 심지어 제복을 입은 직원들조차도 줄을 서 있는 우리들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우리를 밀치고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경우도 있어서 황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것은 물론이고 문을 닫지 않고 용변을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용변 후 뒤처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정말 여행기간 내내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였다.

또한 도시 내에 화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인지 여행기간 내내 서안의 대기질은 매우 나쁜 상태였고, 평소에도 심각한 알레르기로 인해 고생을 하던 나는 여행기간 동안 내내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목이 간질거리고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야 했다. 그러다가 일과를 마치고 야간에 숙소 주변을 산책하기 위해서 나섰던 길에 거리 곳곳에서 지전과 옷 등을 태우는 많은 지역 주민들의 모습, 실내와 실외의 구분 없이 아무 곳에서나 자기들이 내키는 대로 담배를 피워대는 주민들의 모습 등을 보면서 저런 것들 모두가 서안의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들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국내의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많이 걱정이 되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여유 있게 시간을 주어 유적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었지만 현지에서 몇 가지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처음 여행일정을 짤 때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볼만한 공연들 중 한 두 개 정도를 포함시키거나 많은 일행들이 원했던 화산 탐방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추가되어 보다 알찬 여행으로 구성이 됐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실제로 현지에서 화산투어를 추가해 주면 안 되냐는 의견도 여럿 나왔었고 공연을 한 편 보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단체활동이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고, 현지에서 일정을 추가할 경우에 비용이 추가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학우들이 아쉬움을 느껴야 했다.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있었음에도 이번 해외역사문화탐방은(물론 이전의 행사에 참여해 본 이력이 없어서 비교가 불가능 하겠지만) 출국부터 귀국까지 세심하게 배려된 것이 느껴졌고 현지 가이드 역시 하나투어의 사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많이 신경쓰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다는 말을 수차례 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애써주신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해외역사문화탐방의 인솔자로 애써주신 구희정 교수님과 오지희 선생님, 인천공항에서부터 함께하며 특히 서안 공항에서의 길고 지루한 입국심사 때 세심하게 우리를 잘 챙기고 안내해 주기 위해 애쓰셨던 하나투어의 김하나 대리님과 중국 현지에서 3박 4일간의 전 일정동안 자세한 설명과 친절한 안내를 해 주면서 우리들의 돌발적인 요구에도 최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모로 애를 써 주셨던 늘 안녕한 가이드 안용 가이드님, 그리고 여행기간 내내 안전운전으로 우리들의 발 역할을 대신 해 주시고 특히 마지막 날 성벽투어를 마치고 차량 탑승을 위해 이동하는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방패막을 만들어 주셨던 조따거 기사님, 끝으로 11월 3일 학교에서 있었던 발대식에서 처음 만난 이후 11월 7일 인천공항에서 두 번째로 만나서 3박 4일을 함께 하며 사소한 의견충돌이나 다툼은커녕 쟁그림 한번 없이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24분의 우리 여행 동무님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했고, 덕분에 즐겁고 소중한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에 만들었던 밴드와 단톡방 유지하면서 인연 이어가기로 한 약속 잊지들 마시고 가끔씩 번개도 하면서 소중한 인연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다음 달에 실용음악과 발표회에서 만나 응원 하면서 번개모임 하기로 했던 약속 잊지들 마시고 시간들 꼭 비워 두세요~!!!!

^.

이번 여행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인연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2018년 11월 12일 계혜정